

# 이강인 · 백승호, 벤투호 가세

축구 국대 세대교체 신호탄  
3월 22·26일 A매치 출전  
27명 중 23세 이하 선수 8명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에서의 실패를 딛고 다시 뛰는 벤투호가 본격적인 세대교체의 신호탄을 쏘았다. 그 중심에는 이강인(18·발렌시아)과 백승호(22·지로나)가 있다. 파울루 벤투 축구대표팀 감독은 11일 오전 파주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3월 A매치에 출전할 27명의 면면을 공개했다. 한국은 22일 오후 8시 울산문수경기장에서 볼리비아, 26일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콜롬비아와 격돌한다. 2018 러시아월드컵과 같은해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선수들을 위주로 지난 1월 아시안컵을 소화했던 벤투 감독은 이번 명단에서 적잖은 변화를 줬다. 가장 눈에 띄는 이름은 역시 이강인이다.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아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이강인은 만 18세20일로 역대 7번째 빠른 A대표팀 발탁자가 됐다. 벤투 감독은 직접 스페인까지 날아가 이강인의 기량을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강인이 소속팀 주전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2군 경기를 통해 가능성을 엿본 벤투 감독은 그에게 한 자리를 내줬다. 백승호도 이강인과 비슷한 케이스다. 기성용(뉴캐슬 유나이티드)과 구자철(아우구스부르크)이 은퇴를 선언하면서 대표팀 중원은 큰 변



파울루 벤투 축구 대표팀 감독이 11일 경기 파주시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 대강당에서 오는 3월 A매치에 나설 소집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벤투 감독은 백승호, 이강인을 최초 발탁했다.

화가 불가피하다. 백승호는 중장기적인 대체 요원이다. 10대 시절 FC바르셀로나 유스팀에 몸담으며 이강인 못지않은 관심을 받았던 백승호는 오랜 기다림 끝에 A대표팀의 부름을 받았다. 벤투 감독은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능력이 된다. 여러 차례, 여러 상황에서 관찰했다. 주

로 2군 경기에서 본인들의 능력을 선보인 결과"라면서 "대표팀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팀에 잘 융화돼 성장할 수 있을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다. 이 과정을 보기 위해 (발탁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특히 손흥민(토트넘)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선수로 가능성을 비치고 있는 이강인을 두고는 "기술적으로 이미 아주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최대한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판단할 수 있게 지켜보면서 첫 단추를 잘 꿰어 어떤 과정으로 성장하는지, 소속팀에서 향후 어떻게 발전할지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기대했다. 3월 2연전은 승패에 큰 의미가 없는 단순 평가전이자 오는 9월로 다가온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에 대비하기 위한 첫 발 걸음이다. 운영의 중심을 서서히 3년 뒤로 옮겨야 하는 시기다. 이 때문인지 벤투 감독은 27명 중 8명을 23세 이하 선수들로 채웠다. 27명 중 무려 24명이 20대다. 한창 성장 중인 김정민(리퍼링)과 새로운 도전에 나선 황인범(벤투버 화이트캡스, 축구팬들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이승우(베로나) 등이 포함됐다. 반면 만 서른살이 넘는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면서 "월드컵 예선이 시작하기 전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태권도진흥재단은 2019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지원한다.

## 맨체스터 세계 선수권 대비한다

해외 태권도 국대, 오늘부터 28일까지 태권도원서 전지훈련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19 맨체스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대비해 개발도상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대상으로 전지훈련을 지원한다. 12일부터 28일까지 태권도원에서 진행되는 '2019 태권도원 전지훈련'에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미얀마,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등 15개국 69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전문 강사에 의한 겨루기 훈련과 국내 태권도 선수들과의 합동훈련, 태권도원 수련 프로그램, 태권도 이론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일에는 전주 한옥마을을 찾아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질 계획이다. 특히, 14일과 15일에는 전지훈련 참가국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허트 드프리어 대리를 비롯한 4개국 주한 대사관 관계자들이 태권도원을 방문해 재단 이상욱 이사장과 접견, 전지훈련 선수 격려, 태권도원 투어 등을 진행하며 태권도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태권도 해외 활성화를 위한 협의 등을 가질 예정이다. 재단은 이번 전지훈련에 참가한 선수들이 오는 5월 영국 맨체스터에서 개최되는 2019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의 선전과 국가 간 태권도 실력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재단은 오는 7월 이탈리아에서 개최되는 '2019 나폴리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7월 3일~14일)를 대비한 '태권도원 2차 전지훈련'을 6월에 실시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성 기자

## 전북 동호인리그 본격 가동 | 도체육회, 이달부터 10월까지 시군 공공체육시설서

왕중왕전은 11월 2-3일 전주서

우수 클럽팀을 가리는 전북 동호인리그가 본격 가동된다. 11일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도내 14개 시·군 공공체육시설에서 동호인리그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동호인리그는 게이트볼과 배드민턴, 배구, 야구, 풋살 등 15개 종목이 운영된다. 올해 동호인리그에는 도내 14개 시·군 1910개 클럽(약5만1000명)이 참여, 경기를 치르게 된다. 각 시·군의 종목별 우승팀은 도내 최고의 동호인클럽을 가리는 왕중왕전 출전 자격이 주어진다. 왕중왕전은 11월 2~3일 전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시군 동호인들이 다양한 종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며 "생활체육 참여 기회를 확대



전북 동호인리그가 이달부터 10월까지 8개월간 열린다.

해 도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동호인리그는 지난 2009년 전

국 최초로 시작됐으며, 매년 참가 클럽이 늘어나는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잠은성 기자

## 전북체육회,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운영

전북체육회(회장 송하진)는 '신나는 주말체육학교'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지난 9일 주말생활체육학교 강사(지도자) 약 200명을 대상으로 전주대학교에서 진행했다. '신나는 주말생활체육학교' 사업은 학생들의 여가 선용 지원과 체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지도자가 학교인과 학교밖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프로그램이다. 학교인 프로그램은 축구와 농구, 배드민턴, 풋살, 피구, 탁구, 테니스 등 교내 시설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진행된다. 학교밖 프로그램은 불링과 수영, 승마 등 평소 학생들이 접하기 어려운 종목으로 구성된다. 이날 교육은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 및 사업의 운영효과를 극대화하기위해 마련됐으며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필수 강의와 선택 강의로 나뉘어 이뤄졌다. /잠은성 기자



이에 아동성폭력 예방교육과 스포츠상해교육(응급처치), 신나는주말체육학교 운영의 실제, 스포츠윤리와 인성교육, 스포츠와 일탈행동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전북체육회 최형원 사무처장은 "이번 교육은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신나는 주말체육학교의 질적 향상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학생들이 손쉽게 체육을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잠은성 기자



**2019 대한민국 대표축제**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ww.firefly.or.kr

2년 연속 문화관광 대표축제 선정

# 무주 반딧불축제

Muju Firefly Festival

2019. 8.31 토 ~ 9.8 일



**무주군**